

行動科學의 可能性

— 發達의 背景, 概念, 適用 —

李 星 珍*

目 次

- I. 行動科學 發達의 背景
 - 1. 序 2. 行動科學의 範圍와 特徵
- II. 行動研究의 基本典型
 - 1. 行動의 機能的 定義 2. 行動의 決定要因
 - 3. 行動의 Reciprocal Determinism
- III. 行動科學 知識의 應用分野
- IV. 結

I. 行動科學 發達의 背景

1. 序

人間이 人間의 行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 때, 그러한 관심이 어떤 학문의 研究分野로 命名되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原始人이 사냥나갔던 아들이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아 왔느냐고 물을 때, 그 “왜” 라는 말이 곧 그 아들의 行動에 대한 관심인 것이다. 文學家가 人間生活의 喜怒哀樂을 면면히 엮어 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읽고 共感하고 슬퍼하고 기뻐한다. 이 作家는 人間과 人間生活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神學者나 哲學者가 人間의 存在, 人間의 運命에 대한 깊은 思索을 할 때, 그들은 人間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歷史家가 지나간 史實을 근거로 人類의 向方을 外挿할 때 그는 人間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며, 政治學徒, 經

濟學徒, 人類學徒, 心理學徒, 教育學徒……는 그 나름대로 人間과 人間生活, 人間福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의 人間行動에 관한 關心은 오랜 역사를 엮어 왔으나, 보다 體系的인 研究는 19世紀 後半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John Dewey는 오래전에 科學을 物理的, 生理的, 行動的 領域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근거로 Dewey가 行動科學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1950年代初에 Ford 財團이 行動科學을 하나의 事業領域으로 設定하였는데 그것이 行動科學의 시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서의 行動科學研究는 1950년대 以前에도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본격적인 研究는 1950年代 以後에 주로 美國에서 修學한 心理學者나 社會學者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특히 行動科學의 研究를 전문으로 하는 韓國行動科學研究所(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 KIRBS)가 1968년에 發足

* 韓國行動科學 研究所

되면서 부터 한국에서 行動科學이라는 말이 널리 通用되게 되었다.

2. 行動科學의 範圍와 特徵

Berelson은 人類學, 經濟學, 歷史學, 政治學, 心理學, 社會學을 전통적인 社會科學에 포함시키면서, 이 여섯 學問은 다른 분야와 다소 중복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歷史學은 人文科學의, 心理學은 生物科學의, 人類學은 人文 및 生物科學의, 經濟學과 政治學은 經營學과 行政學의 공통 관심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이어서, 行動科學의 主宗學問으로서 人類學, 社會學, 心理學을 포함시키면서, 그러나, 이 세 분야의 관심 영역을 모두 포함하지도 않으며 餘他的 학문 분야의 관심 영역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行動科學은 人類學의 관심 영역인 考古學的 身體的 측면과 心理學의 관심 영역인 순수한 視聽覺의 기술적 측면을 배제한다. 그 반면, 전통적으로 헌법, 정부, 법률, 또는 政治理念을 주종 관심으로 하는 政治學이나 法學의 관심 영역인 政治行動(예컨대 투표행위, 선전 등)이나 法律行動 精神醫學에서 異常行動, 情緒의 反應, 그리고 生理的, 化學的 介入의 결과로 나타나는 行動의 변화: 生物學에서 人間行動의 生理學的 進化論의 根據: 地理學에서 人間의 物理的 環境이 行動에 미치는 영향: 經濟學과 經營學에서 消費 및 購買行動, 企業組織의 士氣, 事業意思 決定行動등은 行動科學의 주된 관심영역에 포함된다.

Berelson이 구획한 行動科學의 관심 영역은 굉장히 넓다는 인상과 그 구획이 대단히 느슨하다는 인상을 동시에 주고 있다. 그러나 現代學問의 보편적 경향을 감안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行動科學의 관심 영역이 넓어 보이는 것은 行動科學이 人間行動을 그 中核 관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現代의 諸學問 분야에서 人間行動을 다루는 부

분에 行動科學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行動科學의 구획이 느슨하다는 인상은 현대 학문 분야가 發展, 分化, 統合을 거듭함에 따라 기존 학문이 도태되기도 하고 새로운 學問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문의 경계선을 엄밀하게 그을 수 없다는 데에 연유한다. 行動科學의 方法論에 있어서 이른바 多學問的 接近을 채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行動科學의 관심 영역은 학문의 발생, 성장, 발전, 분화, 도태가 거듭됨에 따라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分類 및 구획은 行動科學의 中核 관심을 명백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행동과학은 그 用語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두가지의 準據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行動科學은 行動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心理學이나 生物學에서 動物行動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연구가 간접적으로나 또는 궁극적으로 人間行動의 說明, 豫言統制에 도움이 된다면 行動科學에 포함된다. 둘째 準據는, 行動을 “科學的”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방법을 人間行動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며, 과연 人間行動의 科學的 研究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論議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行動科學이 과연 人間行動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론적 論議보다 實證이 더 강력한 대답을 제공할 것이다. 만일 實證의 根據가 있다면 이론적 논의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Farson은 “人間行動에 있어서의 유일한 不變性은 그 變化性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人間行動의 複雜性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행동의 變化性이 그 規則性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行動科學은 變化性 속에서 規則性을 찾으려는 학문적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 강렬하게 될지언정 결코 그 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성 속에서의 규칙성의 발견이라는 만만찮은 課題

에 직면한 行動科學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行動科學의 專門化다. 學問의 發達初期의 未分化 상태는 학문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條件과 雰圍氣가 될 수 있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創意的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자유 분명한 思考가 가능해진다. 그러한 아이디어와 思考는 점차 구체적인 研究로 영글어지며, 궁극적으로 독립된 학문분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학문 生成의 歸納法的過程이다. 학문 발달 초기의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아마추어의 공헌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Whyte의 “組織人間”이나 Whorf의 言語學에의 공헌은 유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行動科學은 불가피하게 專門化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行動科學의 概念이나 術語 특히 구체적인 研究問題의 발견, 구성, 해결방식 등이 이미 아마추어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다. 行動主義와 行動科學을 혼동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도 行動科學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한가지 증거일 것이다. 미국의 유수한 고등교육 기관에서 行動科學部 또는 學科과 속출하는 것은 行動科學專門化의 또다른 하나의 증거이다.

行動科學의 專門化가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것은 行動科學 研究의 特殊化다. 종래의 行動科學은 그것이 종합적 학문이라는 점에서 - 예컨대, 心理學, 社會學, 人類學의 - 그 연구 문제의 범위가 넓었다고 할 수 있다. Riseman의 “외로운 群象”이 그 좋은 예다. 그러나 行動科學이 專門化되어감에 따라 研究問題가 좁아지고, 問題解決의 接近方法에 있어서도 基礎學問의 原理와 節次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연구문제의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종래의 巨視的 현상에서 비교적 微視的 現象에로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며, 方法論에서 기초적 과학적 원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現象의 印象的 思辯的 記述과 說明에서 事實의 證據를 토대로 한 엄밀한 說明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行動科學의 세계 특징은 그 接近方法에 있어서 점차 多學問的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行動科學의 中核 관심사인 人間行動의 과학적 이해는 흔히 어떤 한 분야의 특수한 지식과 방법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향이 많다. 한가지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분야를 동시에 동원하여 접근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강조되는 것은 어떤 現象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綜合的인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行動科學의 專門化와 特殊化는 工學의 發展과 더불어 연구 방법 및 機器 자재의 다양화, 정밀화, 능률화를 초래하여 종래에는 行動科學이 해결 영역을 넘어서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電子計算技術의 팔복할만한 발달은 行動科學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과학의 專門化, 연구 문제의 特殊化, 문제 해결의 多學問化는 보는 관점에 따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객관성, 계량적 측정, 또는 과학주의로 치닫게 되어 “人間” 또는 “人間的 學問”을 모독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반면, 人間行動이라는 엄청나게 복잡한 현상의 연구에서 精密性과 妥當性을 도입하려는 역사적 필연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 두 관점과 개념의 차이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行動科學의 키는 바로 잡혀있다고 생각되며, 그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예측은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II. 行動研究의 基本典型 (paradigm)

經營學, 經濟學, 人類學, 心理學, 社會學, 政治學……등등의 전문분야를 초월한 multidisciplinary study의 필요에서, 行動科學이 하나의 학문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모

든 전문분야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行動 (Behavior)을 그 主題로 하여 그 행동에 관한 法則을 발견하고 일반적인 原理를 확립하고 그 知識을 體系化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行動科學이 人間問題의 解決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基礎理論的 研究뿐만 아니라 應用研究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行動이 그 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1. 行動의 機能的 定義

行動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그중 한가지는 行動이 機械나 기타의 觀察道具 (인간의 눈을 포함)에 유사한 效果를 미치는 측면에서 操作的으로 定義하는 topographical definition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버튼」을 누르는 것은 單語를 말하는 것과 다르고, 단어는 또한 「레버」와 다르다. 行動定義의 다른 한가지 방식은 functional definition으로서, 여기서는 行動을 維持하는 效果에 따라, 또는 行動을 強化하거나 벌하는 그 行動의 consequences에 따라 정의하는 방식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동일한 consequences에 의하여 維持되는 두 개의, 모습이 다른 行動을 같은 行動으로 간주할 수 있다. 盲人이 點字위에 손가락을 움직여 나가는 행동과 청상인이 活字위에 눈을 움직여 나가는 행동은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만, 두 행동이 모두 「讀書」라는 consequences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機能的으로는 동일한 行動이다. 모습이 똑같은 행동, 예컨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을 흔드는 것은 美國과 韓國에서는 機能的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는 “잘 가라”는 뜻이고 한국에서는 “이리 오라”는 뜻이다. 빨간 등, 경찰의 정지 신호등의 刺戟도 “topographically different but functionally the same”이라고 말할 수 있다.

行動의 機能的 定義는 최소한 두가지 長點을 수반한다. 그 첫째는 實驗室에서 확립된 行動의 原理를 그대로 行動의 現實環境에 적용할 수가 있다. 흔히 基礎理論研究를 위하여 實驗室에서 여러가지 動物의 行動을 연구한 결과를 人間의 現實的 行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경우에 따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行動을 機能的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實驗室의 비둘기가 標的을 때리는 것과 精神疾患者의 言語行動은 그 topography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나 functional하게는 같다는 것이 實驗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실험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비둘기의 標的打擊行動을 維持하는 條件 (흔히 reinforcement schedule이라고 함)을 精神疾患者의 言語行動에 도입했을 때 行動獲得의 曲線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종이 다르고, 行動이 다르고, 動機狀態가 다르고, 행동을 유지하는 強化刺戟이 다르다. 즉 topographical definition 상으로 이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러나 機能的으로는 同一한 것이다. 비둘기의 行動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節次가 患者의 言語行動을 변화시키는데에 그대로 적용하는 應用研究는 精神治療에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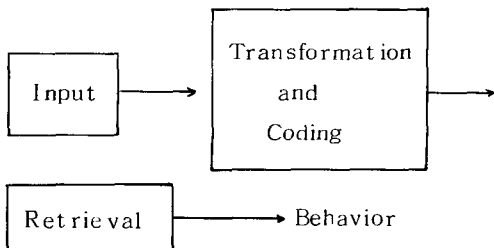
行動의 functional definition의 다른 한가지 장점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集團間, 社會間, 文化間의 表面的으로 다른 行動을 동일한 法則과 原理로 說明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行動의 效果的인 functional taxonomy를 構築할 수 있고 人間行動에 관한 普遍的 理論을 확립할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行動의 topographical-functional definition은 Gestalt psychology의 대가인 Koffka의 geographical-psychological environment의 區分과 유사한 점이 있다.

2. 行動의 決定要因

行動의 定義에서 우선해서 물어야 할 質問은 行動을 결정하는, 또는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人間行動의 決定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行動科學이 있기 이전 부터의 관심사였고 이에 대한 科學的 研究는 역시 心理學의 핵심적 관심사였다. 일반적으로 4가지 다른 입장이 확인된다.

(1) 人間의 行動은 內的·外的 刺戟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行動主義心理學의 [※]立場이 있다. 行動主義心理學은 흔히 刺戟-反應心理學 (Stimulus-Response Psychology: S-R) 이라고도 하며, 生物體內的 內的過程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지 않으며, 可視的, 可觀察的 刺戟과 反應 및 反應을 지속시키는 報償 (reward 또는 強化라고 해석되는 reinforcement) 의 관계를 연구한다. 즉 S와R의 관계를 연구할 뿐이지 個體의 internal processes라고 볼 수 있는 organismic variables (O)에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즉 S-O-R의 연속선상의 O에는 관심이 없는 셈이다. 科學이나 技術分野에서의 Input-Output analysis가 대충 이와 유사하다. 公式化하면 $B = f(s)$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行動 (Behavior)은 刺戟 (Stimuli)과 機能的 關係에 있다.

(2) 人間行動은 投入된 感覺이 神經過程에 의하여 處理되어 行動으로 表現된다는 認知理論의 立場이 있다. 이것을 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즉 認知理論은 자극이 들어오고 腦를



※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行動科學과 行動主義心理學은 別個의 概念이므로 混同해서는 안됨.

통해 一聯의 交換과 回路를 거친 후에 반응이 나온다. 이 理論은 Computer system이나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과 유사하다. 投入되는 情報는 선택되고 비교되고 기억속의 다른 情報와 합쳐져서 變形되고 再配列되는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處理되어 행동으로 표현된다.

(3) 人間의 行動은 無意識의 過程에 의해서 力動的으로 결정된다는 力動理論으로 精神分析理論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無意識의 過程이란 思考, 恐怖등 人間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內的 過程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表現된 行動보다는—그것은 意識의 統制를 많이 받는다— internal processes에 더 관심이 많다. 自動車의 바퀴회전이 行動이라면, 그 行動을 表出하는 엔진의 力學이 internal processes인 셈이다. 公式으로 표현하면 $B = f(P_i)$, 즉 行動은 個人(Person)의 內的過程(i)의 결과이다.

(4) 人間의 行動은 刺戟에 대한 個體特有의 主觀的 解釋과 經驗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現象學的 立場이 있다. 現象主義心理學者들은 우리가 他人의 行動을 관찰하기 보다 자기 자신의 知覺(perception)과 經驗世界를 연구하므로써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낼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言及해온 接近들이 行動의 豫測이나 統制에 관심이 있으나 現象學的 立場은 個人의 內的生活과 經驗을 이해하는데에 있다. 公式化하면 $B = f(P_p)$, 즉 行動은 個人의 知覺(p)과 函數的 關係에 있는 셈이다.

위에 提示한 行動의 決定要因을 macro-level로 확대하면, 크게 세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行動은 環境과의 函數關係에 있다는 environmental determinism으로서

$$B = f(E)$$

로 표현될 수 있다. 둘째는 行動은 個體가 決定한다는 personal determinism으로서

$$B = f(P)$$

로 표현될 수 있다. 만일 個體의 行動이 環境에 (예컨대 集團成員으로서 集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그 函數關係는

$$E = f(B)$$

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E : Environment) 만일 行動이 個體와 環境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B = f(P,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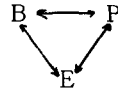
라는 K. Levin의 유명한 函數式이 나올 수 있다.

行動의 決定要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行動은 個體와 環境(狀況)의 相互作用(interaction)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의 要素가 어떻게 相互作用하여 行動을 결정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승意하지 못하고 있다. 즉 行動의 因果關係가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相互作用을 달리 概念化할 수 있다. 相互作用을 一方的인 通路로 개념화한다면 P와 E는 獨立의 內容物로서 공동으로 行動을 表出하는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B = f(P, E)$ 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立場에는 문제가 있다. 個體的 要素와 環境的 要素는 獨立의 決定要因의 役割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個體도 그의 行動과 無關하게 原因이 될 수 없다. 個體가 環境條件을 생성하고 그 環境條件이 다시 個體의 行動에 交互的으로(reciprocally)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개 個體의 行爲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行動에 의하여 生成된 經驗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行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의 장차의 行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行動의 Reciprocal Determinism

行動 決定要素의 unidirectional interaction에 內在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行動

決定要素인 行動, 個體要素, 環境要素가 각각 他要素에 맞써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reciprocal interaction의 관점이다. 이 관계를 다음 圖式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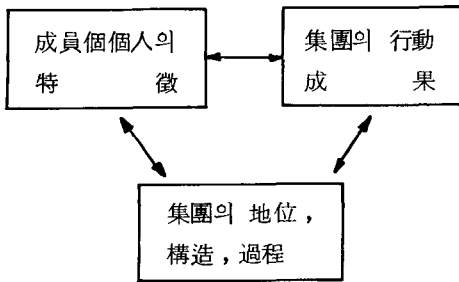
이들 相互獨立의인 要素들이 미치는 相對的 影響力은 狀況에 따라서도 다르

고 行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즉 어떤 때는 環境要素가 行動에 制限을 加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個體要素가 環境을 강력하게 調整하는 경우도 있다. 이 方向의 思考는 行動에 관한 systems approach와 유사하다. 行動에 관한 綜合的 理論은 行動이 어떻게 獲得되었으며 行動의 表現이 어떻게 自己生成의인 要因과 環境的 要因의 交互作用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調節되는가를 說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行動的, 環境的 要素가 어떻게 交互的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단한 實驗狀況으로 설명해보자. 알바이노 쥐(흔히 모르모토라는 실험용 흰쥐)를 鐵絲그리드가 깔려 있는 실험장치에 넣는다. 실험이 시작되면, 60초에 한 번씩 발바닥에 전기속크가 온다. 그러나 레버를 한번 누를 때마다 30초동안 전기속크를 延期시킬 수 있다고 하자. 이런 장치속에서 動物은 자기 자신의 行動(레버를 누르는)으로 環境(실험장치内部)을 調節하는 것을 쉽게 學習할 수 있다. 環境을 統制하는 行動을 이렇게 빨리 學習할 수 있는 有機體는 전기속크 등 嫌惡性이 없는 環境을 만들 수 있고, 어떤 理由에서든 이와같은 對應機能을 빨리 獲得하지 못하는 유기체는 嫌惡環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可能性으로서의 環境(potential environment)은 모든 有機體에게 동일하겠지만 實地의 環境(actual environment)은 그들의 行動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動物이 環境을 調節하고 있는가 아니면 環境이 動物을 조절하고 있는가? 이 實驗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交互過程의 어느 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有機體가 調節의 對象이 될 수도 있고 調節者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自己保護的 反應의 數를 측정했다면 환경이 행동을 조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각 동물이 받은 嫌惡刺戟의 量을 測定했다면, 행동에 의하여 조절당하고 修正된 것은 環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社會의 水準에서는 마찬가지로 だ. 예컨대 企業世界에서는 從業員들이 (P) 勞組등을 통하여 勞動條件(B)의 改善을 要求하고 창출하고, 그 勞動條件이 從業員들의 行動을 좌우하게 된다. 두사람의 dyadic exchange 에서도 A의 行動이 B로부터 특수한 反應을 유발하고, B의 反應이 다시 A로부터 특수한 反應을 유발하는 reciprocal counteraction을 통해 相互間에 특수한 對人關係를 형성하게 된다. 集團行動現象을 reciprocal interaction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짐작했 다시피 reciprocal interaction은 일종의 feedback system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行動科學은 따라서 人間行動의 記述, 說明, 豫測에서 統制에 이르기까지 個體의 動機, 個體에 미치는 環境적 影響에 대한 체계적인 研究를 활발히 進行하여 왔으나, [個體] [行動] [環境]의 交互影響關係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不足하다. 따라서 이 方向으로의 研究가 切實히 要請된다.

Ⅲ. 行動科學知識의 應用分野

行動科學의 知識이 社會 各 分野에 어떻게 活用되고 있고 活用될 수 있는가에 대해, 李相

周는 社會問題의 解決 經濟發展을 위한 計劃과 政策樹立, 企業經營實際, 政治行動의 理解, 社會統合을 強化하기 위한 노력등에 직접 間接으로 活用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現代社會에서 일어나는 社會問題의 해결에 행동 과학적 지식의 活用되고 있다. 現代産業社會에서는 家族破綻, 青少年의 逸脫과 犯罪, 藥物中毒, 過剩都市化, 人口急增, 環境汚染, 心理的 不適應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行動科學의 지식은 이러한 문제의 行動的 原因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문제에 당면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용된다. 犯罪의 敎導活動, 不適應者를 위한 治療, 가족 관계 또는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상담 등에 있어서 行動科學者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人口 및 環境問題와 관련된 社會心理的 要因을 탐구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敎育 및 弘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는데 많은 行動科學者들이 關여하고 있다.

行動科學은 또한 後進社會의 經濟發展을 위한 계획과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示唆해 준다. 지난 20 ~ 30년동안 후진 社會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研究活動에 종사해온 事實들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人間的 要因의 重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Rostow, Hagen, Galbraith, McClelland, Lewis 등은 한결같이 經濟成長의 先行條件으로서 人間의 性格特性이나 社會의 文化的 要因을 지적하고 있다. 宿命主義的 世界觀, 權威主義的 性格, 낮은 成就意慾, 非合理的 經濟觀 등의 心理的 要因과 非능률적 행정조직, 불안한 정치, 가족주의적 社會 關係 등의 제도적 要因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行動科學者들은 경제 발전에 관련된 心理的, 社會的 要因을 규명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要因을 助成하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공헌하고 있는 것이다.

企業經營에 있어서도 行動科學者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1930年代 이후 企業經

함에 있어서 human relations approach 가 강조됨에 따라 企業의 人間的 측면에 대한 학문적, 실제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따라서 기업 조직에서의 非公式의 인간관계, 意思決定 構造, 作業集團 規範, 作業滿足感 등에 관한 行動科學的 研究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를 企業經營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企業經營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職員の 選拔, 昇進, 훈련 등에 있어서 行動科學의 知識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行動科學은 사람들의 政治的 行動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Lasswell 을 비롯하여 Almond, Verba, Pye, Gleenstein, Dutsch 등은 行態主義的 政治학자들로서 政治行動, 政治文化, 政治的社會, 政治意思疎通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行態主義的 政治學이 최근에 와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 社會의 政治現象을 이해하고 정치발전의 전략적 방안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우기 民主主義的 政治制度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政治的 行爲와 性向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行動科學的 知識은 社會統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간의 감정적 편견, 사회계층간의 異質感, 勞使간의 분쟁, 종교집단간의 갈등, 세대간의 차이, 직업 집단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등을 해소하는데 行動科學者들이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行動科學的 研究를 통하여 여러 사회 집단간에 존재하는 긴장된 사회관계의 行動的, 制度的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行動方向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醫療保健, 社會事業, 教育工學, 建築, 農村開發 등 여러 專門分野에 行動科學的 知識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行動科學의 可能性에 대한 조심스러

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行動科學은 그것이 實證的인 data base 를 강조하기 때문 자칫 잘못하면 幻像에 빠질 염려도 있다.

Merton 은 行動科學이 안고 있는 가능한 危險性에 대하여 다음 네가지를 경고하고 있다. 첫째 警告는 行動科學的 知識을 과장하고 왜곡하므로써 行動科學者가 行動科學的 知識을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여 學問自體를 低俗化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行動科學的 知識의 效用性을 과대주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行動科學者들이 여러社會分野의 絶실한 要請때문에 자칫하면 斷片的인 知識의 實用性을 過信하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行動科學的 知識이 非人道的으로 惡用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종류의 知識이든 善用할 수도 있고 惡用할 수도 있는 바, 行動科學的 知識이 利己的이고 不當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人間을 조종하는데에 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行動科學이 지나친 科學主義의 오류를 범할 위험성도 있다. 行動科學者들이 어떤 現象의 一部分을 연구하면서 마치 그 全部를 연구하는 양 생각하거나 科學으로 倫理學的 美學的 研究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여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V. 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Politics 에서 “대부분의 것은 알려졌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과연 人間에 대한 대부분의 것이 알려졌는지도 모른다. 과연, 대부분의 것이 알려졌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知識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가 그 知識을 활용하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行動科學의 발전은 이론과 적용의 創意的 結合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결합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社會的 眞空 속에서의 人間은 아무런 意味가 없다. 人間의 研究는 人間이 있는 곳에

서 문제를 발견해야될 것이며, 의미깊은 人間의 관심사에서 발견해야할 것이다. 鳥類學徒가 새를 관찰한만큼 行動科學徒가 사람을 관찰하지 못했다. 行動科學의 발전은 대담한 思索과 創意的 跳躍을 통한 人間의 관심, 人間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行動科學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한다면 그 역사가 대단히 日淺하다.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아직 思春期에 들어갔을까 말까한 단계에 와 있다. 思春期가 가지는 精力과 元氣와 精熟과, 그리고 좀 성급한 일면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思春期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行動科學은 정착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Berelson, B., The Behavioral Sciences Today, New York, Basic Books, 1963
2. Deutsch, K.W., The Nerves of Government, N.Y., Free Press, 1963
3. Galbraith, J.K., American Capitalism: The Concept of Countervailing Power, Boston, HM, 1952
4. Lewis, O., The Children of Sanchez, New York, Random, 1966
5. McClelland, D.C.,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 J., Van Nostrand, 1961
6. Pye, L.W., Culture and Political Science: Problem in the evaluation of the concept of political culture, L. Schneider, et al (Ed.), The Idea of Culture in the Social Sciences, London, 1973
7. Riesman, D., The Lonely Crowd: A Study in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New Haven, Yale Univ. Press, 1950